

한국 영화에 나타난 도시경관의 의미 해석

서영애* · 조경진**

* (주) 덕성 조경부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도시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인간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으며,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의미를 부여받는다. 도시 환경은 기호의 집합체로서 정주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읽을 거리'로서 '이야기'를 해준다. 도시경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보고 듣는 이상의 추상화된 현실로서 의미를 찾는 것으로 그 의미는 주관의 대상에 대해서 취하는 활동 또는 태도로서, 체험자의 감정, 정서, 가치, 태도, 평가와 같은 현상들을 다룬다.

최근 다양한 의미체계로서의 경관 관념에 입각한 연구들이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경관이 소비되고 재현되는 방식으로까지 그 개념과 연구범위를 확장하면서 경관 이미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미디어 텍스트들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영화를 통한 도시읽기는 '재현의 공간'을 통해 복잡다단한 '경험의 공간'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영화를 봄으로써 그 도시의 다양한 이미지를 읽고 겉모습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발생적, 맥락적 의미들까지 알 수 있다. 김소영(1996)은 "도시의 영화적 시·공간 조작의 실험대상이며 무한한 소비에 대한 집단적 꿈이 실현되고 좌절되는 곳"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화를 통한 도시경관의 연구를 통해 도시공간의 시계열적 탐구 및 새로운 변화를 고찰하고 인간의 근원적 정서와 감정이 영상매체를 통하여 어떻게 재현되었는가를 포착하는 데 있다. 영화를 통해 도시풍경을 읽음으로써, 도시 속에서 시지각 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다양하게 지각되는 경험들, 구체적이고 생생한 도시이미지, 공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의 파악이 가능하다고 본다.

연구 방법은 우선 관련 이론서와 연구 논문, 아티클 등의 문헌을 통하여 연구의 기초적 전제가 되는 영화의 기본적 이해 및 도시경관의 상호 관계를 고찰한다. 그리

고 문화를 기호학적 코드로 읽고자 의미 분석의 틀로서 영상 기호학의 의미작용을 연구하고, 의미체계로서의 도시경관과 문화로서의 도시경관을 보는 시각, 공간 문화로서의 도시 관련 이론에 의해 의미의 형성 및 구조를 고찰한다. 이를 종합하여 정립한 해석의 틀에 의해 사례 영화를 분석하여 각 영화별, 주요 외부공간별 구분의 고찰을 통해 발생적 의미, 표층적 의미, 해석적 의미를 도출해낸다.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시간적 범위 : 1960년대 이후의 한국영화
- 공간적 범위 :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 나타난 도시경관으로 실내공간은 제외한다.
- 내용적 범위 : 리얼리즘 성향의 영화에 나타난 도시경관

II. 영화와 도시경관의 의미

19세기 대도시에서 도시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시각 경험을 변화시키는 장치 중 카메라의 보급은 가시성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벤야민(Benjamin, 1983)은 기술적 복제는 사진에서 인간의 육안으로는 미치지 못하지만, 시각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렌즈에 의해서는 포착될 수 있어서 원작의 의도를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도 있고, 또 확대나 고속 촬영술과 같은 기계적 조작의 도움을 받아 자연적 시각에 의해서는 포착될 수 없는 이미지를 고정시킬 수가 있다고 하였다. 즉,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간주되던 것이 사진과 영화에 의해 보이게 되었으며, 이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시각 세계를 확장한 것이었다.

한편 도시에 산다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이미지를 조망하게'되며 그러한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적 생활의 모든 대상은 유통하는 스펙터클이 되고, 파노라마처럼 닦쳐오는 시각각의 과부하는 모더

니티의 주 감각기관을 '눈'으로 호명한다(주은우, 2003). 영화를 통한 도시경관 읽기는 도시라는 공간으로 하여금 그것이 숨기고 있는 사회적 생산 관계 및 도시적 속성들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며,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은 곧 우리가 일상적 삶의 궁극적인 표형 양상을 고찰하고자 함이다. 이렇듯 도시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며 생산, 변천, 소비되어 가는 '사회 공간(social space)'으로서 도시를 바라봄과 동시에, 물질적인 공간적 실천 및 공간의 재현, 재현적 공간으로 구분되며, 공간의 재현이 한 사회의 지배적 공간으로 언어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재현적 공간은 상징적 목적으로 예술가, 철학가에 의한 경험 공간으로 비언어적으로 표상된다. 이들은 인지되는 것(the perceived), 상상되는 것(the conceived), 생명을 가진 것(the lived) 등으로 변증법적 관계로 강조된다(Henri Lefebvre, 1991). 또한 도시를 문화 경관으로 본다는 것은 '바라보는 방식 혹은 시각적 전유방식'(ways of seeing)으로서 경관 관념을 가지고 경관 연구를 하는 것인데, 문화 경관의 가시적 생산과 물질적·정치적 실천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현대 일상 경관과 복잡한 현대 도시 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이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문화=공유된 의미 체계'라는 기호학적 문화 개념을 도입하여 경관의 의미화 패턴, 즉 경관에 담겨있는 의미의 다양성과 경관의 상징적, 담론적 구성을 문화·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이무용, 1999).

이러한 다층적인 도시 경관의 의미 구조는 불변체적 의미와 변체적 의미로 구성된다. 불변체적 의미는 텍스트가 생산되는 순간부터 컨텍스트적/텍스트적으로 결정되는 의미이고, 변체적 의미는 소통 맥락과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되는 의미이다. 컨텍스트적 의미는 배경/의도 지향성과 독특한 상호 텍스트성에 의해 발생적 의미로 볼 수 있다. 텍스트적 의미는 표층적인 의미로 범주화되어 대상을 직접 표상하는 시각적, 기능적 의미로 또 다른 의미를 부가한다. 이러한 의미의 구조는 김창원(1994)의 '시 텍스트의 해석 모형'에서 정리된 내용을 기저로 하여 보다 단순화시켜 재정리하였다.

III. 영화 선정과 의미 해석의 틀

1. 영화 선정

표 1. 의미 구조

의미 구조		
불변체적 의미		변체적 의미
컨텍스트적 의미	텍스트적 의미	담화적 의미
발생적 의미 (생산 배경/ 의도 지향)	표층적 의미 (지시 관계 : 시각적, 기능적 의미)	해석적 의미 (소통/ 해석 의도 지향)

----- 정보성의 격상

1960년부터 1989년까지의 영화 선정은 '한국영화 70년 대표작 200선'을 토대로 하였다. 이 자료는 1919년부터 1989년까지 제작된 한국 영화 가운데서, 국내 영화상을 수상했거나, 해외 영화제 출품 또는 수상작, 서울 개봉 10만 이상 관객 동원, 그리고 화제작, 문제작 등 기준에 따라 추천된 400여 편을 영화진흥공사가 선정한 선정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한국을 대표하는 200편을 선정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보고 활용하였다. 1990년 이후의 작품에 대해서는 흥행 순위 및 문제작, 화제작들을 고려하였고, 참고 자료 및 영화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토대로 최종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영화(사극, 전쟁 영화, 도시가 주 무대가 아닌 영화, 표현주의 성향의 영화 등)를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각 시기별로 사례 영화를 선정하였다. 선정 영화는 표 2와 같다.

2. 의미해석의 틀

의미 구조의 세 개의 층위 중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발생적 의미이다. 이는 한 영화의 전체 성격을 구분하는 것으로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 사회 문화적 배경의 탐색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영화의 장면, 즉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혹은 표현하고 있는 시각적, 지시적 의미로서 이는 물리적 의미, 혹은 영상 기호학의 기본 개념인 유상적 기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의 각 장면마다 배경이 되는 공간과 인물들의 상황 등이 이에 해당하며, 두 번째 층위인 표층적 의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서 이와 같은 컨텍스트, 텍스트적 의미 분석 후 담화적 의미 해석으로서 지표적 기호현상을 통한 영화적 은유 혹은 환유적 의미 해석 단계이다. 이것은 영상 매체에서만 가

표 2. 선정 영화

구분	영화명	년도	감독	비고
1960~1979년 전성과 굴절기	박서방	1960	강대진	
	마부	1961	강대진	
	오발탄	1961	유현목	
	수학여행	1969	유현목	
	마보들의 행진	1975	하길중	
1980년대 새로운 출발기	바람 불어 좋은 날	1980	이장호	
	꼬방동네 사람들	1981	배창호	
	철수와 만수	1988	박광수	
	구로아리랑	1989	박종원	
1990년대 부흥기	장미빛 인생	1994	김홍준	
	패자가 우물에 빠진 날	1996	홍상수	
	초록물고기	1997	이창동	
	인정사정 볼 것 없다	1999	이명세	
2000~2004 성장 및 변화기	플란다스의 개	2000	봉준호	
	박하사탕	2000	이창동	
	와니와 준하	2001	김용균	
	고양이를 부탁해	2001	정재은	
	후아유	2002	최 호	

능한 표현으로 그 장면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 내포하는 의미, 즉 추상적 개념을 영상화한 영상기호의 의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발생적 의미는 생산 배경과 의도 지향성으로써 비물리적 의미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의미로 함축할 수 있으며, 물리적·유상적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층적 의미로 함축되어 시각적·기능적 관계를 지향하며, 나머지 환유, 은유적 의미 해석은 소통과 해석의 지향성의 해석적 의미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로서 한 영화의 전체 발생 맥락과 시대적 배경과의 관계, 각 장면에서의 표층적 의미, 그로 인한 해석을 통해 도시 경관의 숨겨진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IV. 영화에 나타나는 도시경관의 의미

1. 발생적 의미해석

사회문화적, 역사적 배경 및 당대의 이데올로기,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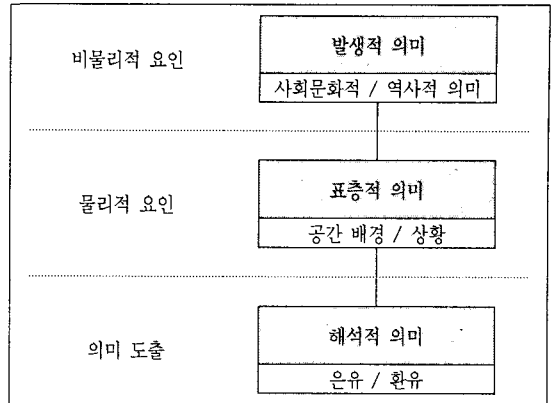


그림 1. 해석의 틀

사적인 상황 등이 영화의 공간 배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표현되고 변화되어 왔는지를 고찰해 본다.

60년대는 근대화가 태동하면서 전통적인 가부장적 의식과 급변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시점이며, 이때의 영화들은 가난 혹은 전쟁후의 상처를 겪는 도시민의 삶이 신작로, 어두운 골목, 희망의 대로 등에서 투영되고 있다. 60년대 후반 '수학여행'에서의 대로와 70년대 영화인 '마보들의 행진'에서의 대로는 각각 놀라운 발전상의 강조와 강압적 권력에 의한 반항적 공간으로 대비를 이룬다. 8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은 소비 자본주의 체계의 눈부신 성장을 하며 70년대와는 다른 소재의 영화가 등장하지만 현실적 묘사에는 억압이 많았다. 이 가운데서 주목할 영화는 '바람 불어 좋은 날'과 '꼬방 동네 사람들'로 개발 중인 도시의 내부 혹은 주변부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개발론과 뒤러린 가치관으로 갈등을 겪는 인물들의 모습이 묘사된다. 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개인적 특성을 가진 모더니즘 영화가 등장하면서 홍상수 감독의 작품을 통해 일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이는 공간에서 영화를 위한 특별히 설정된 공간이라기 보다는 늘 보던 주변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며 지루하고 남루한 일상적 경관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한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그 속에서의 삶은 보다 복잡해지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고 공간의 의미는 사건의 부단한 만남을 통해 시간에 따라 변해간다(김정호, 2002). 고유한 공간의 특성이 사라지는 다층적 의미의 공간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온라인 상의 가상 공간(후아유, 2002) 등 새로운 공간이 포착된다. 특히 경계 영역인 liminal space(Victor Turner, 1996)는 '고양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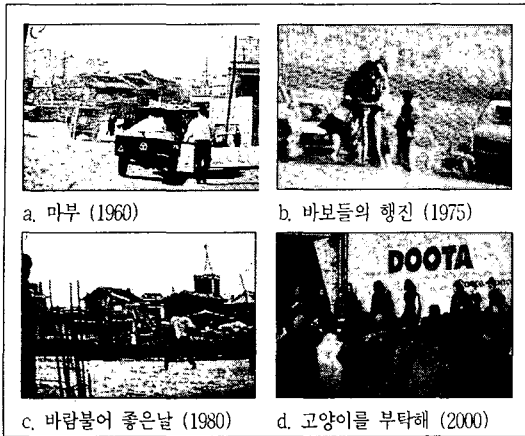


그림 2. 발생적 의미의 연구

부탁해'에서의 상업공간이 이벤트장으로 활용되면서 상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과 율미도라는 공적공간과 상업 공간이 혼재하는 공원에서 고찰되며, '질투는 나의힘'에서 자주 등장하는 도심 대형건물 전면의 공개공지는 사적 공간을 공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2. 표층적 의미해석

1) 대로 (Streetscape)

대로는 주로 희망, 변화, 절망적 표현에 주로 많이 등장한다. 이는 역사적 상황, 사회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60년대 영화에서 보여지는 희망과 근면의 상징인 신작로에서 70년대와 80년대의 영화에서 보여지는 권력에 의한 억압과 폭력에 의한 점유공간, 저항공간으로의 의미로 변화된다. 도시경관은 현대사회의 특징을 반영하여 대로의 파노라마적 시각은 현실을 스펙터클로 바꿈으로써 자본의 권력을 드러내는 도심의 마천루로 투사된다. 특히 광고로 뒤덮힌 경관은 근대화가 시작된 60년대 초기 영화인 '오발탄'(1961년)에서 '고양이를 부탁해'(2001년)까지 변화함, 인간과 스펙터클 경관과의 대조, 화려함 속의 소외 등의 장치로서 등장하고 있으며, '돼지가 무물에 빠진 날'(1996년)의 광고 경관은 일상에까지 아무런 의미 없는 일반적 경관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지와 영상의 소비 시대에 이르러서는 전광판 스펙터클로 확대되어 광고이 외에도 집단적 축제가 가능한 '차별의 공간'으로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의 통로 역할도 하게 되었다(조경진,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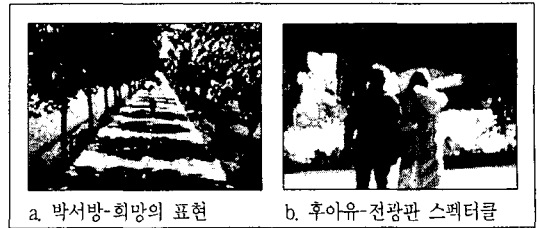


그림 3. 대로의 표현

2) 소로 (Alleyscape)

소로는 절망, 일상생활, 폭력의 표현에 주로 많이 등장하고, 대로가 희망과 절망의 극단적인 대비된 모습을 보여주며 의미부여적 측면의 표현이 주였다면, 소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습을 표출하고 있다. 소로에서 주목할 사실은 우리의 일상 생활을 가장 잘 포착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소로는 사적 공간에서 곧바로 만나게 되는 공적 공간으로, 대로가 시대성이나 당대의 권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공간임에 비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개인적 생활의 장으로서 큰 변화나 굴곡 없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일상 공간이다. 우리의 일상은 겉으로는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두터워지는, 사람과 사람이 빚어내는 문화적 총체라고 할 수 있으며, 작은 일상이 모여 도시 전체의 경관 이미지를 창출해 내는 '이야기' 혹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3) 기차길 (Railroadscape)

기차길은 희망, 변화, 절망의 표현에 주로 등장한다. 특정 방향으로의 변화의 표현이 되는데, 이는 물리적 공간의 변화, 즉 시골에서 도시로의 이동을 표현('수학여행')하기도 하고 도시화 혹은 근대화에 의한 변화로서의 표현('바람 불어 좋은 날', '꼬방동네 사람들')이기도 하며, 과거로의 회귀, 순수로의 회귀의 표현('박하사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기차길은 다른 도시 경관에 비해



그림 4. 소로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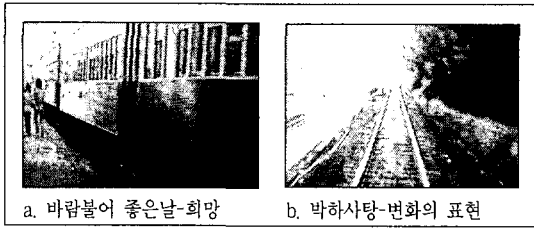


그림 5. 기차길의 표현

움직이는 동적 경관이다. 기차 안에서 밖을 보는 움직이는 경관과 기차 밖에서 선로를 따라 어디론가 떠나가는 기차를 보는 두 개의 시선이 존재한다. 또한 머무름과 떠남이라는 두 개의 의미가 충돌하면서 감정적 파장이 발생하고, 이 감정적 파장은 영화에서 변화, 새 출발, 희망, 회귀, 낭만 등의 의미로 강조된다. 카메라와 기차의 등장은 단순히 우리의 시지각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의미의 확대를 가져오는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4) 옥상 (Loftscape)

옥상은 희망과 절망, 일상 생활의 표현의 의미로 주로 나타난다. 특별히 정원이나 마당이 넓은 주택이 아닌 주거 공간에서는 사적인 옥의 공간 활동을 할 만한 장소가 부재하다. 옥상 공간은 이러한 도시 생활에서 중요한 생활 공간이며, 위의 사례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그 의미 또한 다중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옥탑방은 월세가 싼 이유로 서민층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최근 드라마, 영화, CF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간이다. 옥탑방 자체는 초라할지라도, 세상을 내려다보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과 자유로움, 그리고 지상의 세계를 꿈꾸는 강인한 시지프의 의지까지 곁들여진 옥탑방과 옥탑방 뒤로 보이는 원경은 매우 낭만적이고 휴머니즘적인 이미지를 창조하며(심승희, 2004), 신처럼 내려다보는 태양의 눈이 될 수 있다. 더 넓은 범위를 보려는 신비주의적 충동의 고양. 다른 아닌 바로 '시점(viewpoint)'이 되려는 욕망(박명진 외, 1996)이기도 하다. 이 옥상은 신분 상승적 의미, 야망과 미래로의 희망의 의미로 표현되어져 왔으며, 90년대를 전후로 영화에서 일상성이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옥상 공간은 소로와 비슷한 성격의 생활 공간의 장으로 자주 묘사되고 있다. 즉, 옥상 공간은 낭만적 장치로서의 의미 외에도 생활 공간으로서의 성격과 극한의 인간 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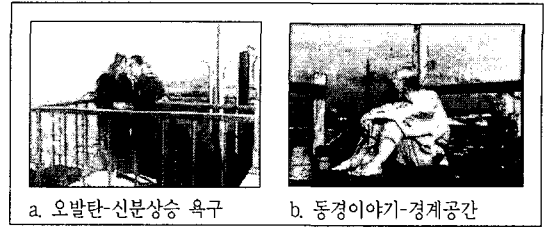


그림 6. 옥상의 표현

의 해방구로서의 의미까지 폭 넓고 다중적인 의미로 고찰된다.

5) 강 (Riverscape)

강은 희망, 낭만과 절망의 대비되는 표현의 의미로 주로 나타난다. 대도시에서 강이 가로질러 흐른다는 것은 경관적, 정서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강과 함께 교량 경관은 성장을 상징하는 요소로서 CF에도 자주 등장하는 경관이며, 서울에서의 한강이라는 독특한 자연 경관은 복잡한 도심과는 대조적인 한가롭고 낭만적인 경관 연출을 위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강 경관은 이러한 다중적 의미를 내포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고찰한 경관 중 유일한 자연 경관으로서 인간 감성의 변화를 증폭,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영화에서 표현하는 의미가 더 강조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고독감을 더욱 고독하게 하여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간다거나, 낭만적 감정, 의욕과 야망, 화해와 갈등 해소 등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며 전달시킨다.

3. 해석적 의미해석

영화의 시각적 이미지는 단 몇 초의 한두 장면으로 전체적 분위기, 주인공의 심리가 전달되며 영화적 장치에 의해 의미가 강조되기까지 한다. 즉 지표적 현상을 이용한 환유적 표현으로 추상적 개념을 영상화시킴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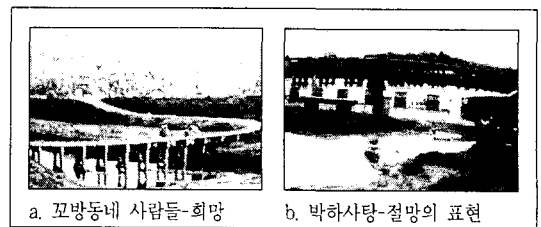


그림 7. 강 경관의 표현

써 강력한 의미 전달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례 영화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경관은 단순히 인물과 사건의 뒷배경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감정과 의미의 폭을 보다 강조하고 확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도시 경관의 중요한 특징으로 각 공간은 어느 쪽이라고 확연히 규정지를 수 없는 모호한 경계 공간(liminal space)의 성격으로 파악된다는 점이다. 경계 공간이란 문지방이라고 부르는 중간단계인 '전이'의 단계로 일종의 애매성의 시기와 영역, 사회적 중간상태를 의미한다(Victor Turner, 1996). 일종의 다른 공간으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상의 영역으로 물리적 경계, 사회문화적 경계, 감정적 경계 등 폭넓게 고찰된다. 물리적 경계란 하늘과 땅의 경계인 옥상 공간, 흐르는 자연과 인공물의 경계인 강 경관을 예로 들 수 있고, 사회문화적 경계란 근대와 전근대의 대로('박서방', '마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로서의 소로('꼬방동네 사람들', '플란다스의 개'), 문화와 상업의 혼재('고양이를 부탁해'), 도심 내 오픈 스페이스('절투는 나의 힘'), 신분과 이념의 경계로서의 옥상 공간('칠수와 만수') 등이며, 감정적 경계란 떠남과 새 출발의 의미('구로아리랑', '와니와 준하'), 변화의 경계('박하사탕')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모호한 경계를 가진 공간은 일상적 감정에 파장을 불러일으켜서 인간 감정의 변환점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영화는 이처럼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공간적 배경을 이용하여, 더욱 직접적이고 다양한 '상황'을 만들으로써 새로운 시선으로 장소를 보도록 한다.

V. 결론

도시의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의 영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화를 시대적으로 분류하여 각 시대별로 기준에 적합한 3~4편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사회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는 발생적 의미의 파악과 공간 배경과 영화 장면의 상황을 고려한 표층적 의미의 파악을 거쳐 필름상의 은유, 환유적 의미를 고려한 해석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각 장면마다 도출된 의미는 희망, 낭만, 변화, 소외, 절망, 만남, 장소, 일상, 폭력, 공포의 표현 등 10가지 의미군으로 분류하였다. 영화 장면을 공간 배경별로 구분한 결과 주요 빈도 수로 배경을 분류하면 소로(Alleyscape), 대로

(Streetscape), 기차길(Railroadscape), 옥상(Loftscape), 강 경관(Riverscape)으로 나타났다. 다시 이 공간들과 의미군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공간별로 주로 표현된 의미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발생적 의미, 표층적 의미를 통해 영화에 나타난 도시 경관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소로를 비롯한 '길'은 한국 영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공간이며, 특히 대로는 당대의 이데올로기가 가장 잘 표현되는 공간으로, 근대화의 시점, 권력과 독재의 상징, 도시화 등의 변화가 고찰되었으며, 광고 경관, 경계 공간(liminal space), 가상 공간 등 다양한 공간으로 시대에 따라 대로의 모습과 의미는 많은 변화를 보여준다. 그에 비해 소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생활 공간으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으며, 영화가 일상성을 주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사건 중심보다는 보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적 공간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또 하나의 길인 기차길은 새 출발과 희망의 상징으로 표현되며 유통화 된 시지각의 제공뿐만 아니라 떠남과 만남이라는 경계선상에서 감정의 파장을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한국 영화에서의 옥상 공간은 소박하고 남루한 일상 속에서 낭만과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강 경관 역시 도시 경관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장소성의 부각 및 낭만적 장치로 주로 쓰이며 도심 속의 대표적 자연 이미지로써, 부여하고자 하는 감정 및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에 적합한 요소이다. 영화는 환유적 표현으로 추상적 개념을 영상화시킴으로써 강력히 의미 전달이 가능하게 하고, 영화를 통해 본 도시 경관은 단순한 배경이 아닌 사건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감정과 의미의 폭을 보다 강조하고 확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의 공간은 어느 쪽이라고 확연히 규정지를 수 없거나 다른 공간으로 편입되는 과정상의 영역인 모호한 경계 공간(liminal space)의 성격으로 파악되는데, 여기서 경계는 물리적 경계, 사회문화적 경계, 감정적 경계 등으로 폭넓게 고찰된다. 도시경관은 다양한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다중적인 의미의 집합체로서 경험과 상상을 포함하는 삶의 문화적 총체인 장소로 파악된다.

즉, 도시 경관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 속성과 감정이 현실보다 강하게 표현되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피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건에 의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이는 그 공간을 더욱 풍부하고 생기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듯이 그 안에 담겨질 인간의 삶의 다양한 이야기에 주목하고, 공간과 인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새로운 장소의 창조라는 생각으로 환경설계에 접근한다면 다층화되고 복잡한 도시의 삶을 이해하고, 보다 다양한 문화를 창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용문헌

1. 강홍빈(1983) 도시 환경의 기호학 : 그 가능성과 함께. 세계의 문학 8(1).
2. 구동희 역음(1999) 영화 속의 도시. 서울: 한울.
3. 기호학 연대 편(2003) 대중 문화 낯설게 읽기. 서울: 문학과 경계사.
4. 김소영(1996) 시네마, 테크노 문화의 푸른 꽃. 서울: 열화당.
5. 김정호(2002) 사건의 특성으로 본 외부 공간 해석 방법.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김창원(1994) 시텍스트 해석 모형의 구조와 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박명진 외(1996) 문화. 일상. 대중. 서울: 한나래.
8. 박정순(1995) 대중 매체의 기호학. 서울: 나남출판.
9. 심승희(2004) 서울 시간을 기억하는 공간. 서울: 나노미디어.
10. 영화진흥공사 기획(1989) 한국영화 70년. 대표작 200선. 서울: 집문당.
11. 이명희(1989) 의미 체계로서의 도시 환경의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이부용(1999) 한국 도시 경관의 근대성. 문화역사지리 (11).
13. 이효인(2003) 영화로 읽는 사회문화사. 서울: 개마고원.
14. 조경진(2003) 디지털 전광판의 이중적 시선. 대한 건축학회 48(2).
14. 주은우(2003) 시각과 현대성. 서울: 한나래.
15. Donald Kunze(1987) Thought and Place. New York: Peter Lang.
16. Henri Lefebvre(1991) The Production of Space. Cambridge: Blackwell.
17. Henri Lefebvre(1990) 박정자(역). 현대 세계의 일상성. 서울: 주류. 일념.
18. Victor Turner(1996) 이기우, 김익두(역). 제의에서 연극으로. 서울: 현대미학사.
19. Walter Benjamin(1983) 반성완(역). 발터벤야민의 문예이론. 서울: 민음사.
20. <http://www.seoulfc.or.kr>
21. <http://www.kofic.or.kr>